

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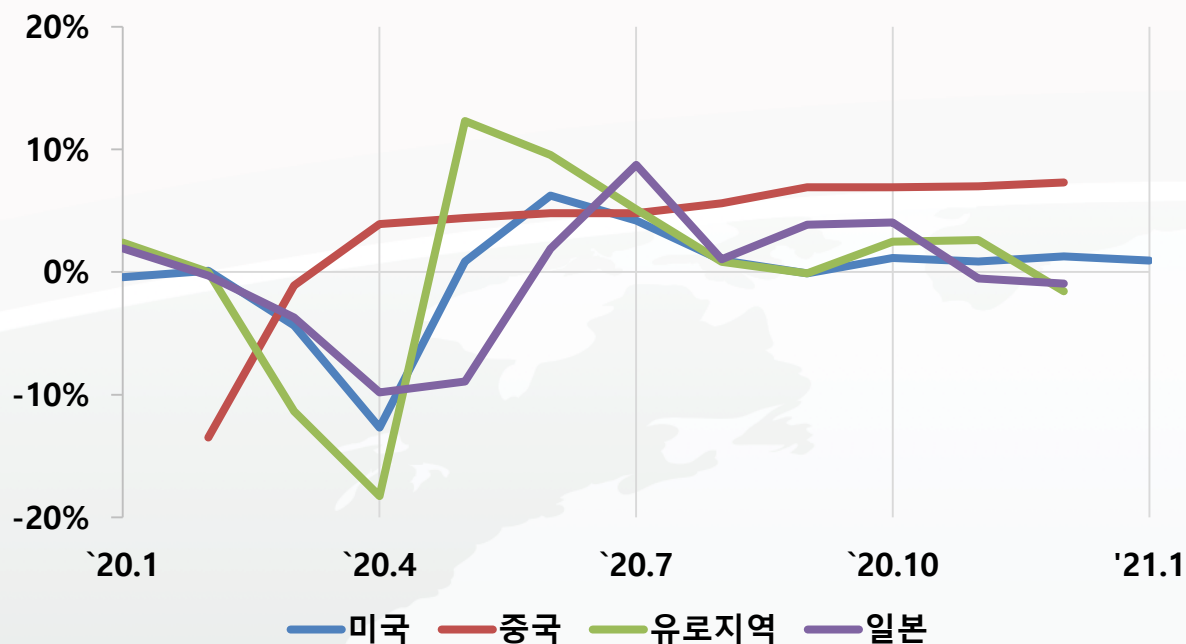
2021.2
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■ 주요국 경제동향 : 코로나19 확산세 및 대응 차이 등으로 상이한 경기회복 양상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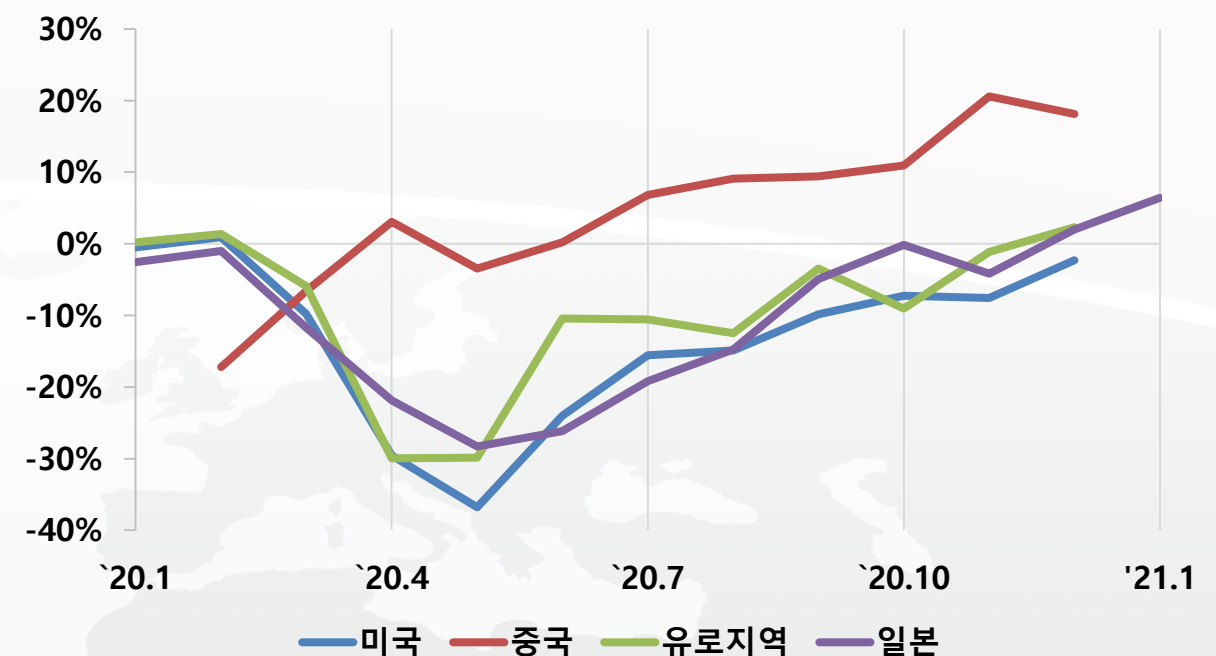
- (미 국) 지난 연말 통과된 경기부양책(9,000억 달러 규모) 등으로 주요 경제지표 개선
 - 1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+0.9%)은 지난 10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는 한편, 1월 소매판매(전월 대비 +5.3%)는 3개월 연속 감소 후 첫 반등
- (중 국) 코로나19 방역 대책(출제 기간 이동제한 등)으로 제한된 경기회복 양상
 - 1월 제조업 PMI(51.9 → 51.3,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)가 소폭 하락하고, 서비스업 PMI(55.7 → 52.4)도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 기록
- (유로존) 코로나19 재확산 및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경제활동 위축
 - 12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$\Delta 1.6\%$)은 마이너스 전환되는 한편, 1월 합성(제조업+서비스업)PMI지수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하락 전환 (49.1 → 47.8)
- (일 본) 2개월 연속 수출 증가 등 경기 반등 기대감
 - '20년 성장률은 $\Delta 4.8\%$ 로 1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, 1월 수출(전월 대비 +6.4%)은 전월에 이어 증가세 유지

전산업생산지수



주 : 전월 대비, 계절조정.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Bloomberg

수출 추이



주 : 전년동월 대비, 비계절조정.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
자료 : Bloomberg

국내 경제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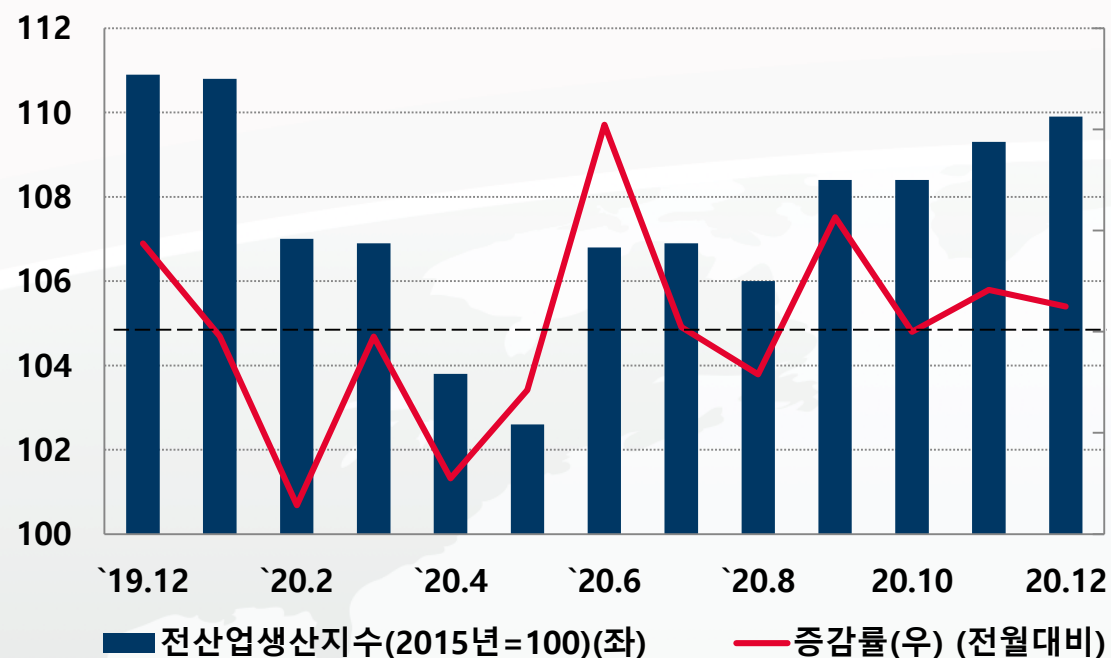
■ 산업 활동 : 경제회복 모멘텀 유지

- (생산) 12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감소에도 불구하고, 광공업 생산 2개월 연속 증가로 전월 대비 0.5% 증가
 - (광공업 : +3.7%) : 자동차(△8.6%) 등이 감소했으나, 반도체(+11.6%), 기계장비(+10.0%) 등이 증가하며 전월 대비 큰 폭 증가
 - (서비스업 : △1.1%) : 금융·보험업(+4.6%) 등에서 증가하였으나, 숙박·음식점(△39.5%), 운수·창고(△13.9%)가 줄어 전월 대비 감소
- (경기) 12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98.9p) 보합,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103.0p) 7개월 연속 상승 (기준치 100)

■ 수출 동향 : 일평균 수출액, 사상 첫 21억 달러 돌파하며 1월 실적 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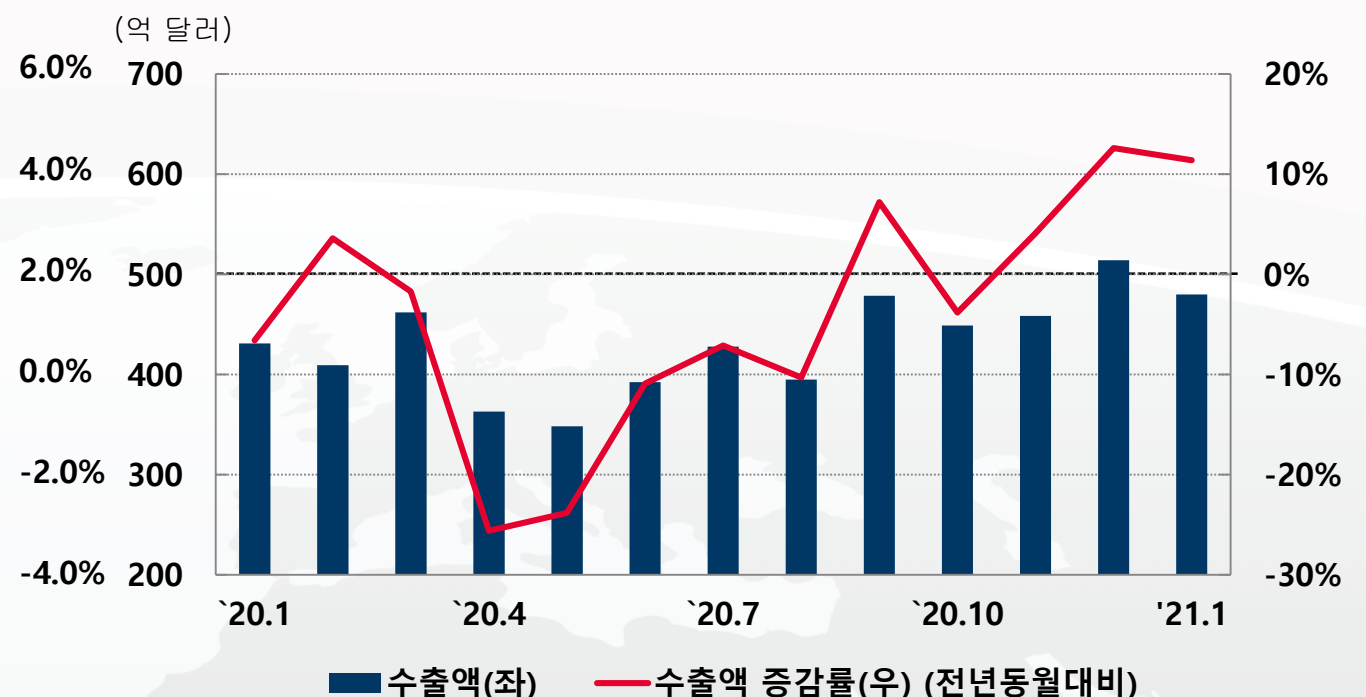
- 1월 총수출은 480.1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+11.4%), 일평균 수출은 21.3억 달러(+6.4%)로 3개월 연속 동반 증가하며 상승세 지속
 - 中(+22.0%)·美(+46.1%)·EU(+23.9%) 등 3대 시장에 대한 총수출이 모두 20% 이상 증가
 - 15대 품목 중 바이오헬스(+66.5%)·자동차(+40.2%)·반도체(+21.7%) 등 12개 품목 증가, 석유제품(△46.0%)·섬유(△7.9%)·일반기계(△4.8%) 등 감소

전산업생산지수(계절 조정)



자료 : 통계청

수출 추이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통관기준)

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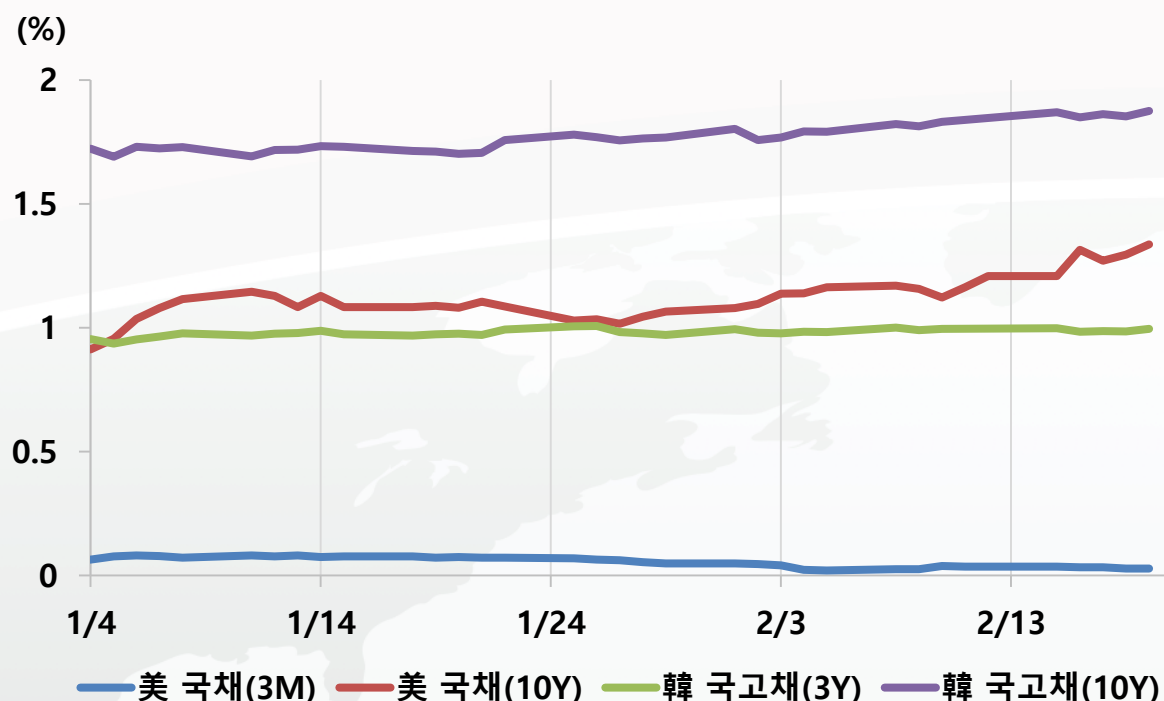
■ 금리 동향 : 인플레이션 기대 등으로 장기금리 위주 상승

- (미국)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및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 등으로 장기물 금리 가파르게 상승
- 美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초 대비 43bp 상승하는 등, '20.2월 이후 최고치 기록 ('21.2.22, 1.33%)
- (한국) 글로벌 금리 상승 속 당정의 재난지원금 추진에 따른 국채 물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장기물 금리 상승세 지속

■ 환율 동향 : 미 달러화,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양책 등으로 약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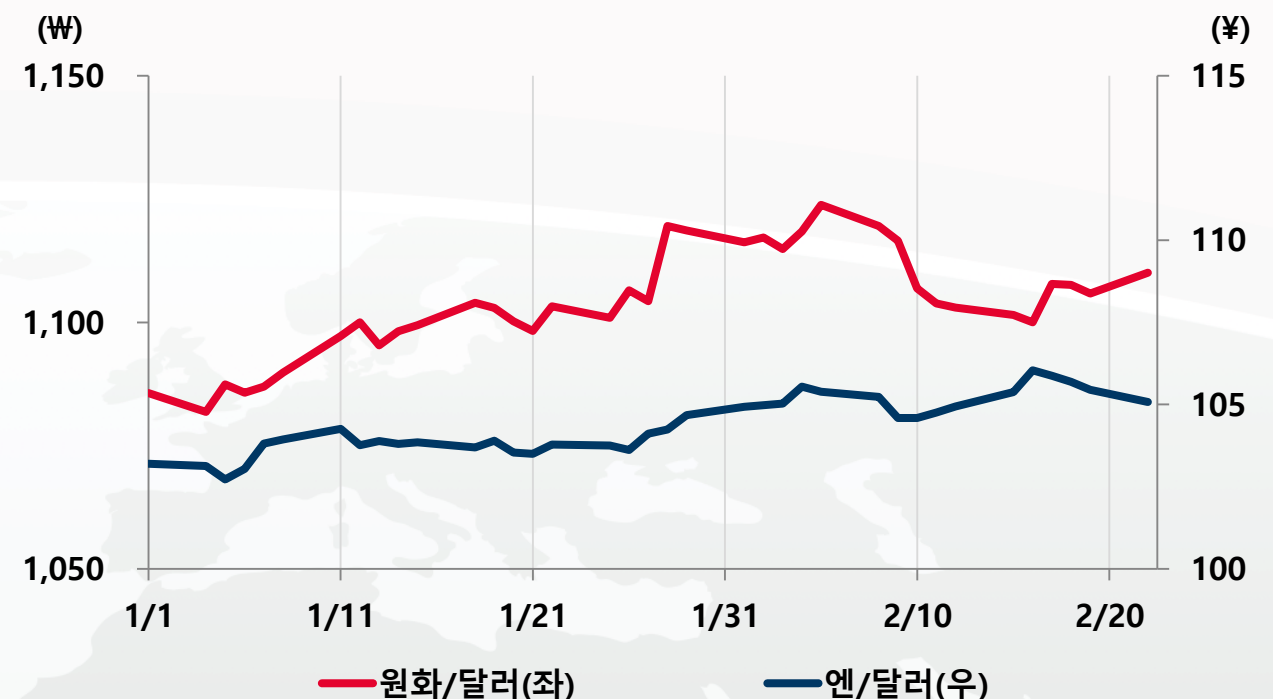
- (원/달러 환율) 양호한 우리나라 수출 지표 및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수 등 외환공급 우위 여건 등으로 하락하였으나, 최근 미 국채금리 급등 등으로 소폭 상승
- (엔/달러 환율) 미·일 금리차 확대 등에 따라 상승하였으나, 이후 미국 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하락 전환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금융투자협회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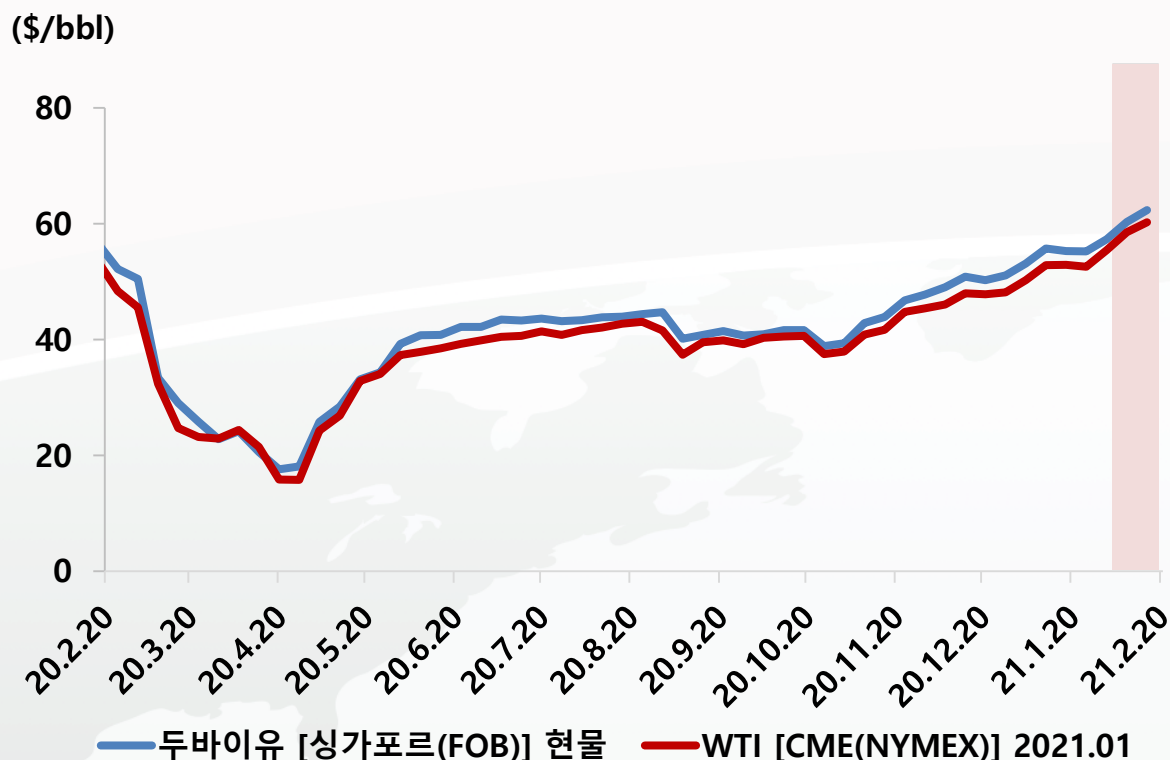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

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

■ 미국 텍사스를 강타한 전례 없는 한파의 영향으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동반 상승

- (유가) 백신기대감으로 11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유가는 미국의 전례 없는 한파로 텍사스 지역의 유정 및 정제설비들의 가동 중단 등으로 공급차질 우려가 확대되며 상승 지속, 2월말 배럴당 60달러 초반대 기록
 - 다만 3월 OPEC+ 회의에서 증산 검토 가능성과 미국과 이란간의 갈등 해제 기대감 등이 유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여 상승 지속세는 어려울 전망
- (천연가스 가격) mmBtu당 2달러 중후반대에서 보합세를 보이던 가스가격이 한파 영향으로 3달러대 돌파
 - 2월 텍사스 지역이 혹한의 날씨로 정전됨에 따라 천연가스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되어 생산량이 감소하며 2월 18일 천연가스 가격이 mmBtu당 3.2달러대로 급등
 - 이후 온화한 날씨 예보 등 한파 영향에서 벗어나며, 2월 20일 3달러 수준으로 하락

국제유가 추이



자료 : Koreapds(유가는 주간 가격,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)

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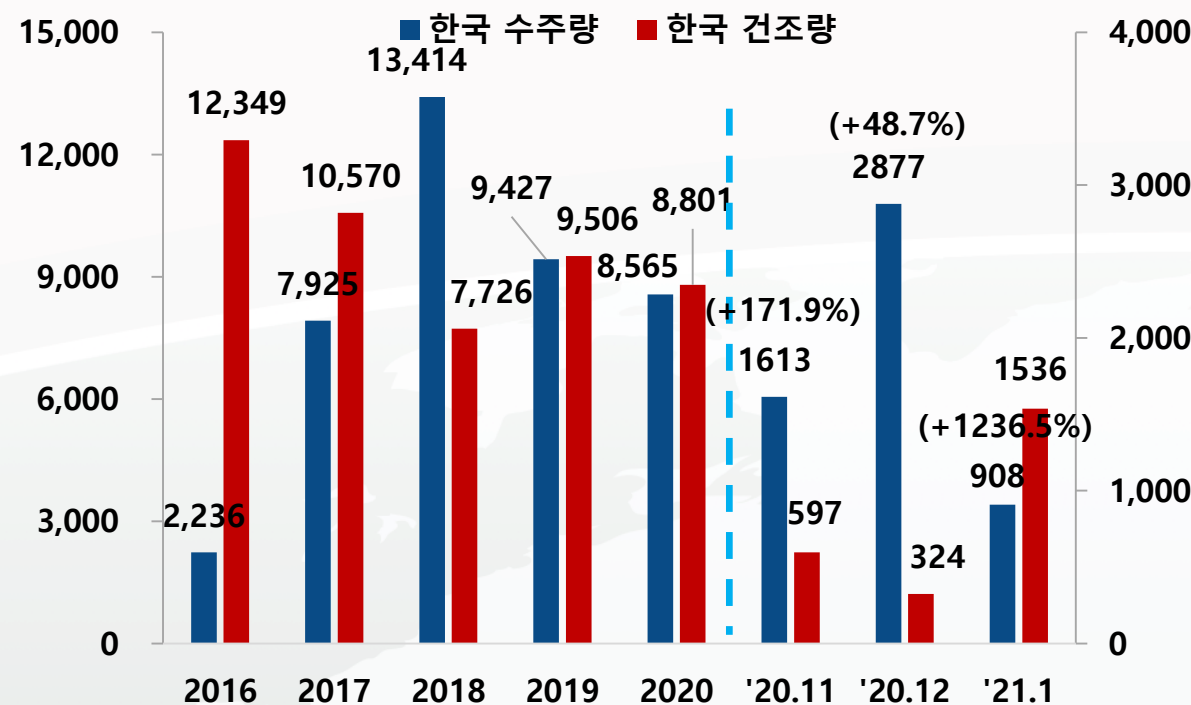


■ 세계 시황의 부진에도 불구하고, 큰 폭 개선

- 1월 수주는 LNG선, 대형 컨테이너선, 대형 유조선, LPG선 등 다양한 선종 수주로 전년동월 대비 크게 증가
 - 1월 수주는 수주량 91만CGT (전년동월 대비 1,236.5%), 수주액 21.2억 달러 기록 (전년동월 대비 1,528.3%)
 - 1월 세계 발주량은 170만CGT로,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전년동월 대비 13.7% 개선에 그쳐 여전히 부진한 수준
 - 1월 중국과 일본의 수주는 전년동월 대비 각각 32.4%, 41.4% 감소하며, 한국의 수주 점유율은 53.5% 기록 (CGT기준)
- 선박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크게 증가
 - 1월 수출액은 34.9억 달러 (전년동월 대비 23.4%)

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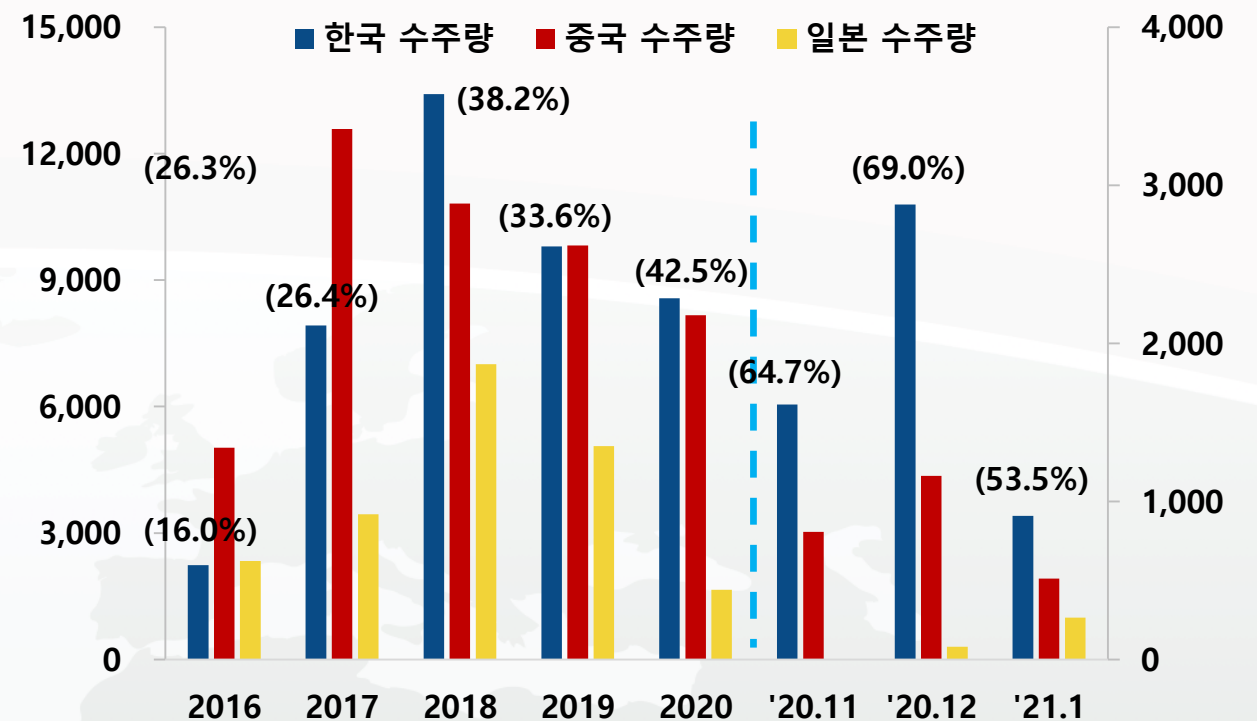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
자료 : Clarkson

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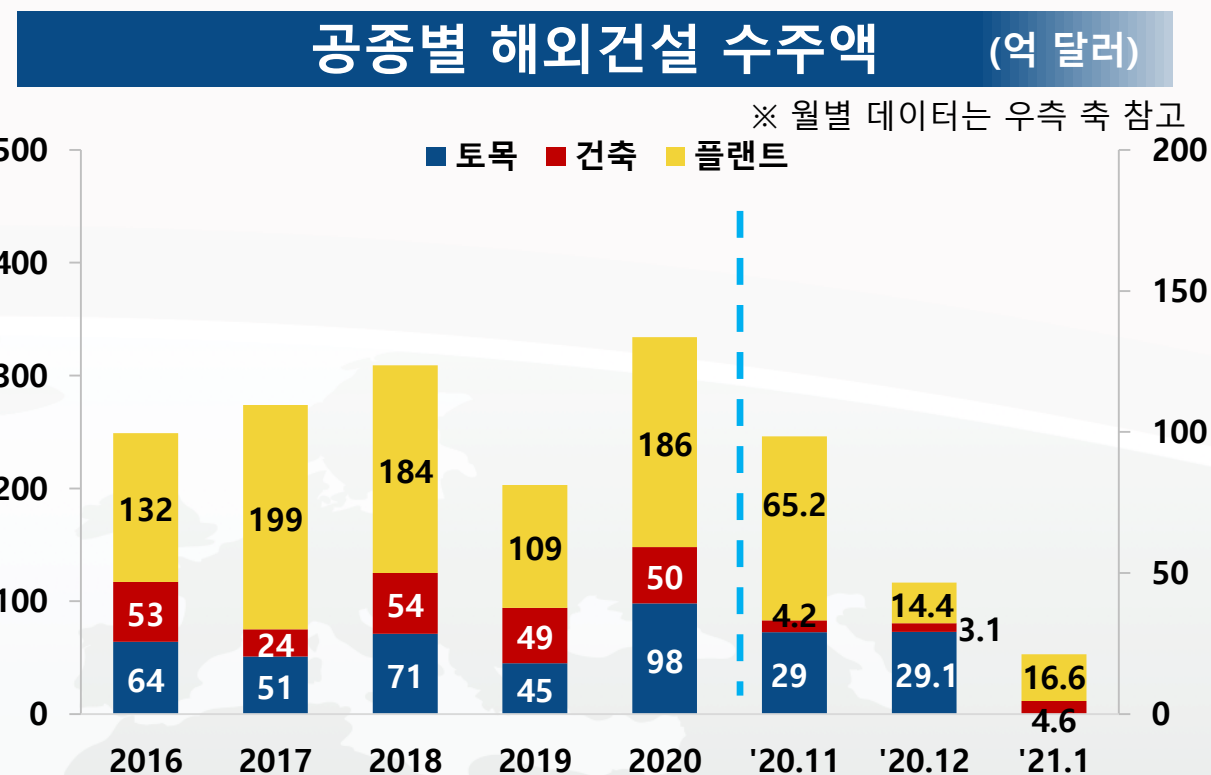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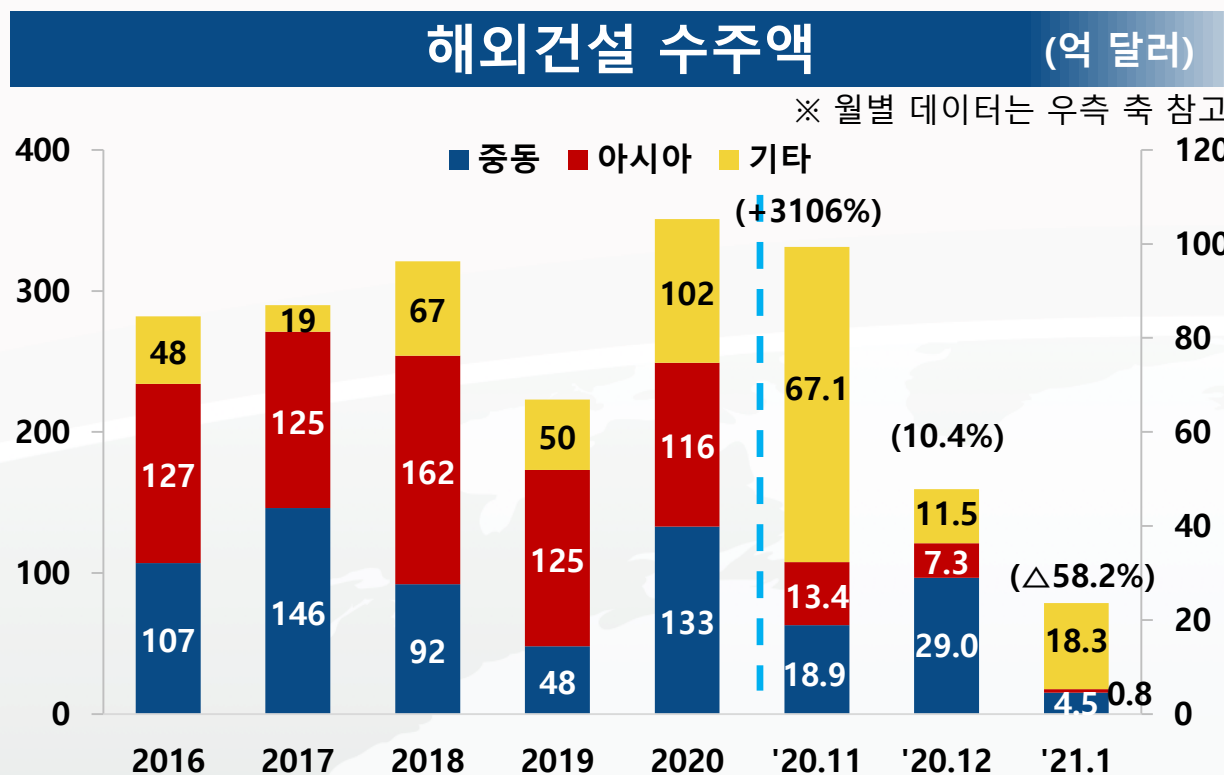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
자료 : Clarks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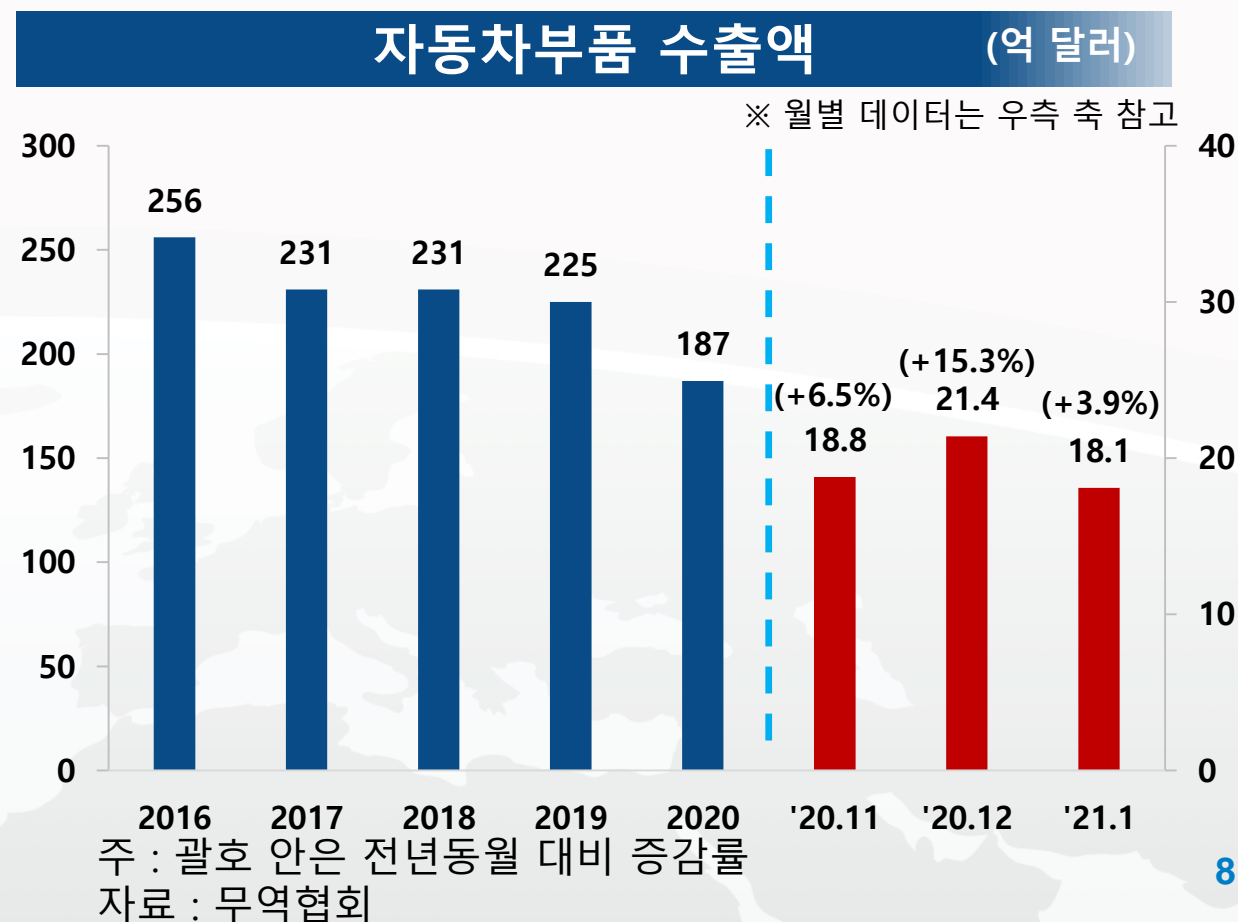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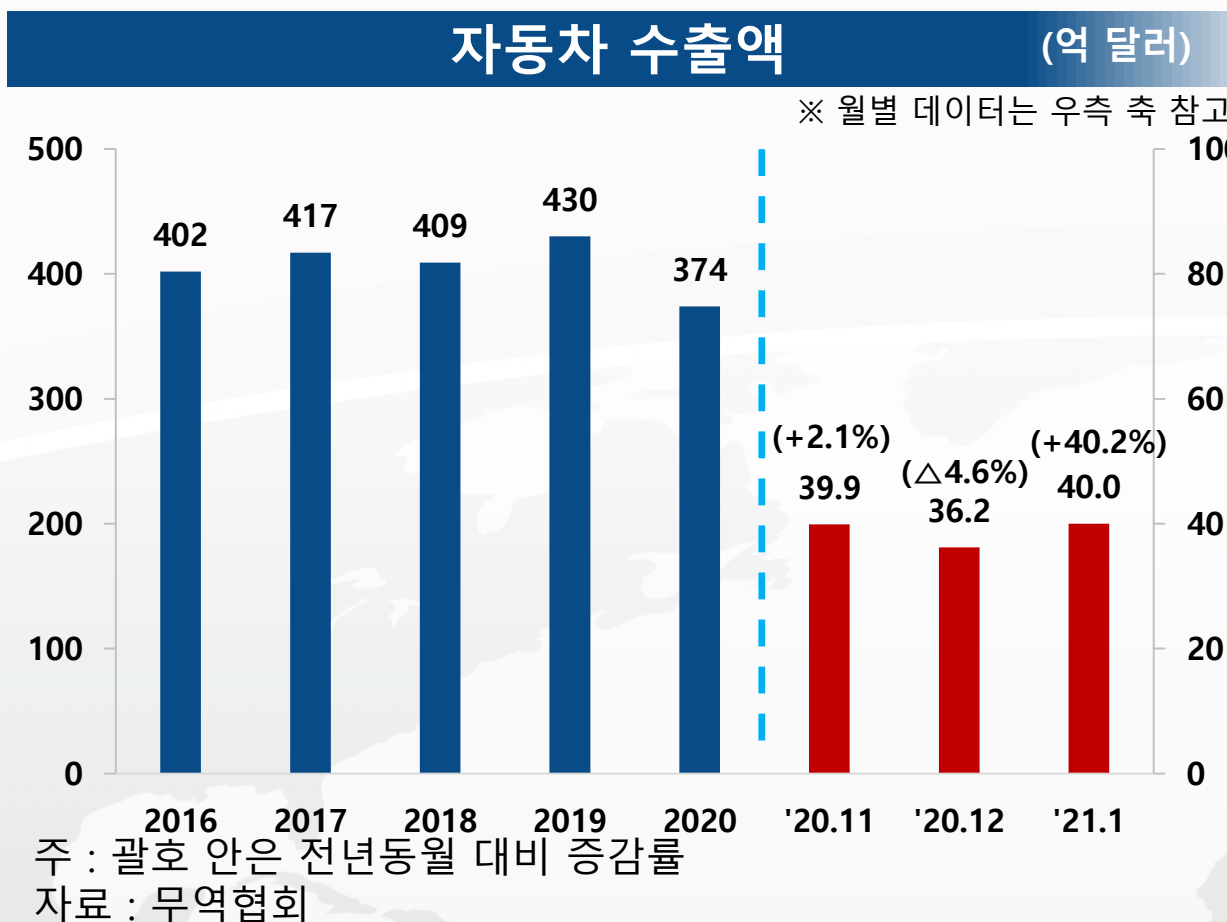
■ 1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58.1% 감소한 23.6억 달러

- 지역별 수주액은 중동 4.5억 달러, 아시아 0.8억 달러를 기록하며, 전년 대비 각각 87.0%, 96.2% 감소
 - 15억 달러 규모의 사업*을 수주한 북미 지역을 제외하고 핵심 수주 시장인 중동 및 아시아 지역 연초 수주 부진
 - * SK배터리 아메리카 2단계(7억 96만 달러), 우쿠두 복합화력발전공사(5억 7,100만 달러), 삼성전자 오스틴 리트로핏 공사(1억 9,100만 달러) 등
- 공종별 수주액은 플랜트 16.6억 달러, 토목 0억 달러, 건축 4.6억 달러를 기록
 - 플랜트 및 건축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32.8%, 64.0% 감소
- 2020년 대비 연초 해외건설 수주가 저조한 상황이나, 코로나19 상황 안정 및 유가 상승 등 전년 대비 수주환경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



■ 1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40.0억 달러, 18.1억 달러를 기록

-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40.2% 증가했으며, 수출 대수는 전년동월 대비 29.5% 증가
 -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자동차 수요 회복*, 고부가 차량 판매호조 및 영업일수 증가(+2일) 등이 1월 수출 증가를 견인
 - * '21.1월 지역별 수출실적(억 달러, %, 전년동월 대비) : (북미) 18.4, +40.2 (EU) 9.2, +71.7 (아시아) 2.3, +43.0
 - SUV · 친환경차 등 판매단가가 높은 차종의 수출 비중이 증가*함에 따라 수출 대수보다 수출액이 더 크게 증가
 - *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(+75.2%, 전년동월 대비, 대수 기준)와 하이브리드 전기차인 니로(+123.7%)의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짐
 -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0% 증가한 9억 달러로 월간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,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25% 차지
-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3.9% 증가를 기록, 전년에 이어 증가 추세 지속
 - 미국 시장에서 SUV 호조세, 중국의 승용차 시장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수출 3개월 연속 증가



■ 1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 대비 20.5%, 32.1% 증가

•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0.5% 증가한 87.8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7개월 연속 증가

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스마트폰·서버 수요 증가, 마이크론의 대만 D램 공장 정전사고(12.3)로 인한 D램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4.9% 증가한 53.2억 달러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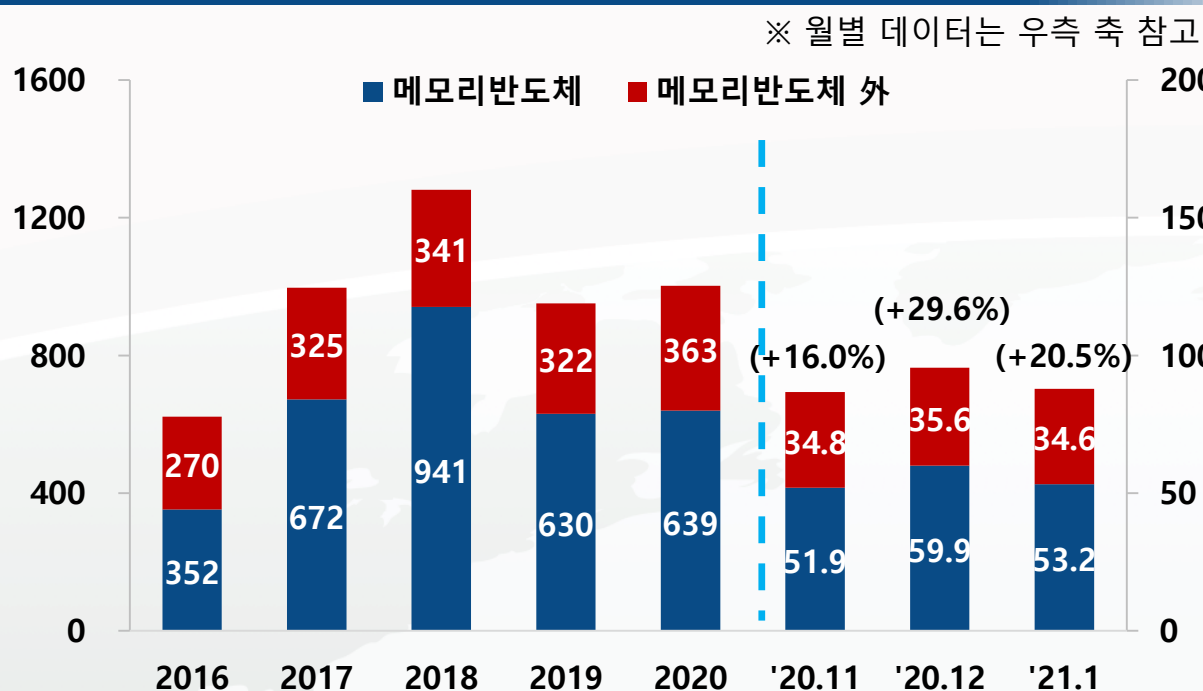
* D램 고정거래가격(달러) : ('20.1)2.84→(2)2.88→(3)2.94→(4)3.29→(5~6)3.31→(7~9)3.13 →(10~12)2.85 →('21.1)3.0 (D램익스체인지)

-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등의 수요 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16.0% 증가한 29.1억 달러 기록

•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2.1% 증가한 20.7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5개월 연속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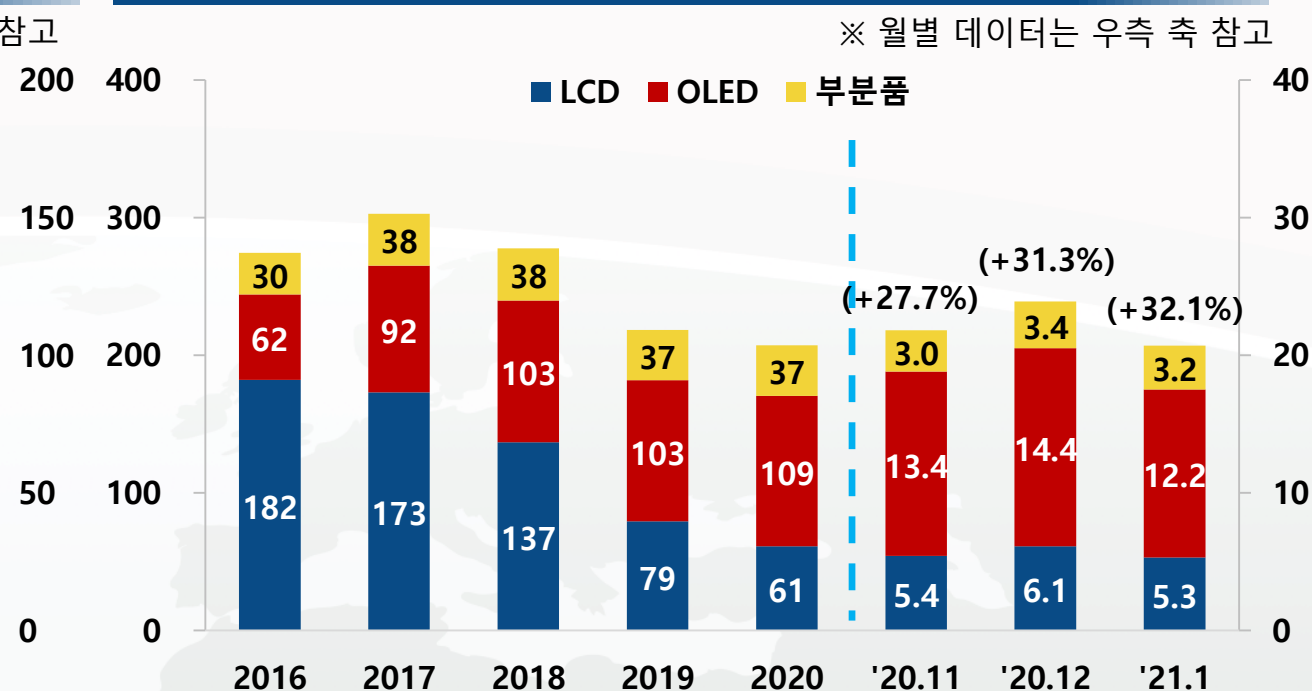
- OLED 수출은 모바일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2.1% 증가한 12.2억 달러 기록
- LCD 수출은 LCD 가격 상승, PC 등의 수요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0.5% 증가한 5.3억 달러 기록

반도체 수출액 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

디스플레이 수출액 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